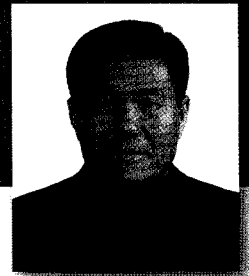




조경수 수요 현황 및 재배관리와 전망



자문위원 농학박사 | 박형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들어가며

21세기는 자연환경이 현재보다 더욱 열악해지는 관계로 삶의 질 차원에서 조경의 의미가 무한히 커져 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후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양적인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이제는 질적인 시대,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름다움, 깨끗한 물과 공기, 새로운 질서 등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경수의 생산은 필수

적이다. 그러나 조경수를 생산하고자 하는 공간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수 생산을 위한 기초식식과 정보에 의한 생산이 부족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도시주변에서 아름다운 나무, 꽃등에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시대가 왔다.

앞으로 조경수목의 수출입 하는 과정이나 품종의 등록 판매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경수목의 특성과 재배 적지

적수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서로의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야 될 것이다.

1. 조경수 수요 전망지역

우리나라 조경수 재배는 전망이 앞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개발지역을 볼 때 행정복합도시, 4대강개발, 혁신도시 10개 지구(부산, 제주, 경남, 충북,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광주전남, 전주) 기업도시 6개 지구(원주, 무주, 태안, 충주, 무안, 영암·해남), 개성공단지구, 신도시 11개 지구(김포신도시, 검단신도시,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파주운정, 아산탕정, 대전서남부, 양주옥정, 양주회천, 평택국제화도시)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청라, 영종, 송도1단계),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청라, 영종, 송도1단계), 보급자리주택, 학교숲가꾸기, 도심숲가꾸기 사업 등이 앞으로 사업이 전개되면서 조경수종 수요 될 것으로 본다.

2. 조경수 교목, 관목의 용도별 규격묘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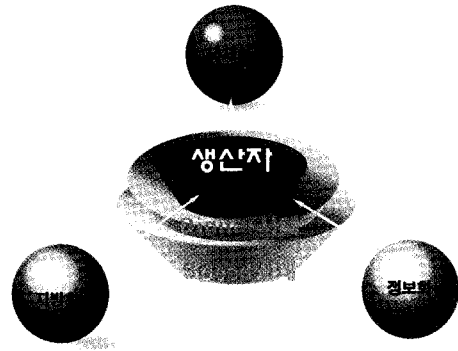
조경수 재배는 시간이 단기간에 재배가 아닌 장기적 재배가 되어야 한다. 교목은 10년, 관목은 5년 정도 계획하여 재배가 되어야 한다. 요즘은 교목을 생산하는데 약 근원경 6cm 이상인 나무가 조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로수용 수종은 근원경 12cm로 큰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관목인 경우 약 수고 80cm 정도에서 공사가 가능하다.

2010년도에 조경수 규격별로 구입 할 때 조달청가격이상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구입하는 실정이다. (R8 R9 R10 R12cm) 이것은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대형수목을 원하고 있다. 그것은 아파트 및 빌딩이 고층화로 변하기 때문에 큰 나무를 현장에서 원하고 식재되어지고 있다. 또 가로수용 수종도 근원경이 8cm에서 12cm 이상을 식재하는 경향이 많아 졌다.

3. 질적인 조경수 생산 계획

조경수 재배 현황을 보면 소규모재배는 줄고 대규모재배 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소규모재배는 농촌현실이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농업보다는 조경수 생산을 하는 것이 소득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밭, 논농사가 줄고 조경수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대규모생산 재배는 조경회사 자체농장증가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

로 인한 영농조합 작목반구성원 젊은층의 규모 확대로 인한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량생산 보다는 질적인 조경수종을 생산하여 이제는 적지적수에 맞는 브랜드로 최고 품질 좋은 조경수생산(수형, 꽃, 잎, 열매, 가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은 지방화시대로 국내시장보다도 국제시장으로 정보를 통하여 조경수종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빨리 전환할 때이다.



4. 조경수 관리와 재배 조건

조경수 재배는 자기 자본금과 토지인지 임대토지인지를 고려하여 수종선택을 하여야 한다. 자본금과 자기 면적이 크면 교목성 수종을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본금과 토지면적이 적을 때는 관목 및 지피식물, 종자파종 위주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된다.

교목성 나무는 최소 5~10년 정도 재배하여야 출하가 가능할 것이다.

관목 및 종자파종, 지피식물 재배는 1~3년이면 전량 출하가 가능하다.

조경수재배는 처음에 자본금이 많이 소유되고 기간이 길어 재배를 계획 할때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관목류는 생선이 빠르고 유통이 빠르다.

처음 조경수 재배시 구입처와 인근 농장 또는 주변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장을 견학한다든지 자문을 하여 기술을 접목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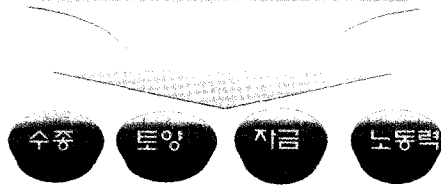
조경수종 재배 조건은 수종, 토양, 자금, 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재배수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돌이 있는 토양에는 관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교목성

인 나무는 분 뜨기가 좋은 토양에서 수종을 선택 하여야 높은 소득을 높힐 수가 있다.

또한 초기에 밀식재배로 수고생장을 빨리 높힐 수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할수 있다. 밀식 재배를 통한 조기소득은 재배자의 경험을 통하여 보면 근원경 R3cm 4cm 재배시 간격을 약 50cm정도로 수고를 높이는 방법이다.

각 수종을 보면 산딸나무, 산벚나무, 산수유, 때죽나무, 이팝나무, 자작나무, 산사나무, 마가목, 팔배나무 등이다.

조경수종의 식재 결정은?



5. 선호하는 조경수종

○ 활엽수교목수종

느티나무, 단풍나무, 복자기단풍, 중국단풍, 수양단풍,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산딸나무, 팔배나무, 계수나무, 메타세콰이아, 자작나무, 산사나무, 회화나무, 때죽나무, 자엽자두, 꽃복숭아, 매화나무, 등

○ 침엽수종

소나무, 반송, 스트로브잣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가이스까향나무, 전나무, 곰솔, 주목, 금송 등

○ 화목류

목련, 산수유, 배롱나무, 마가목, 모감주, 자귀나무, 꽃사과, 배롱나무 등

○ 관목류

철쭉류 회양목, 눈주목, 화살나무, 개쉬땅나무, 라익락, 미스김라일락, 낙상홍, 피라칸사스, 남천, 병꽃나무, 조팝나무, 황매화, 덜꿩나무, 병아리꽃나무, 팔꽃나무, 가침박달나무, 분꽃나무, 특히 조팝나무류 (서양조팝, 왜성조팝, 꼬리조팝, 황금조팝) 등으로 옥상정원 및 미니조경에 많이 사용된다.

○ 울타리 조성용

서양측백나무, 측백나무, 쥐똥나무, 사철나무, 남천, 피라칸사, 화살나무, 개나리 등

○ 덩굴식물

능소화, 줄장미, 다래나무, 머루나무, 담쟁이, 으름나무, 줄사철, 송악 크레마티스(큰꽃으아리) 등

○ 기능성수종

참죽나무, 헛개나무, 참웃나무, 슈퍼뽕나무, 음나무, 두릅나무 등

6. 조경수 선택 및 관리

앞으로 조경수재배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어느 수종을 선택하고 비배관리에 따라 재배자의 브랜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조경수종은 대중성이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야 유리하다. 설계에서 새로운 수종은 하자 발생시 수종을 구입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다. 수종 선택은 그 지방에 맞는 조경수종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식재 후 관리하는 수종선택, 비배관리, 수형이 매우 중요하다.

조경수는 수종 및 수형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

